

(농) (정)

작기, 작량 약제가 실패되도록 대농민 지도에 최선 다하겠다.

—올해 방역행정의 이모저모—

농수산부 식물방역과장

조 태 호

옛부터 눈이 많은 해는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다.

금년에도 틀림없이 대풍을 사전에 약속이나 해주듯 창밖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는 일들중의 하나, 병해충과의 싸움에서 전년보다는 더욱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되어야 할텐데……

우리나라 농사가 자연에만 의존하던 60년대에 이어 인공풍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오늘날의 농사, 자연에 순응하면서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는 “좋은 것은 더욱 좋게”라는 농촌 청소년들의 슬로건과 같이 더욱 노력하여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금년도에는 취약지 중점 방제로 병충해 일소라는 큰 목표를 내걸고 병해충과의 싸움에 기필코 승리하고자 한다.

1. 병충해방제 추진방향

병충해 발생을 정확히 사전 예측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만은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병해충이라는 게 그해 그해의 기상 상황과 재배적 측면 등에 의한 복합적 요인에 의해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기상뉴스를 들어보면 흑심한 가뭄과 한파가 계속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 등 금년도 기상 역시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전년에 비해 일반벼의 재배가 확대될 것 같다는 것이 주위의 여론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열병, 애멸구, 끝동매미충에 의한 바이러스병의 확대가 전년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이에 종래의 화학적 약제 방제 위주에서 지역적 적정 품종 배치, 농토배양 및 경종적 재배측면을 고려한 전 측면에서의 종합방제 기술을 정착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하에 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처코자 한다.

가. 종합방제 체제의 정착

- 재해예방 위주의 종합방제 체제 확립
- 조기정밀 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
- 공동, 용역방제단의 활성화

나. 병충해 전염원의 초기박멸

- 월동 병해충의 초기 전염원 제거

- 종자 소독 및 묘판 병충해 방제 철저
- 병충해 발생 상습지 중점 관리

다. 병충해 방제기술 지도교육 강화

- 적기 적량 약제살포 교육
- 병충별 특성에 맞는 방제기술 지도강화
- 농약 안전사용의 지속적인 농민제도

라. 농약 관리와 공급제도의 개선

- 농약의 안전확보 및 적기공급
- 농약의 포장 및 표시방법 개선
- 농약의 품질관리 철저

2. 방제 중점추진시책

매년 병충해로 인한 감수는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 이는 오직 사전 예방 위주의 종합방제 대책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매년 지도하고 있는 재해 상습지역의 내병충성 품종보급, 사질답, 습답 등의 저위 생산지역에 대한 객토, 벧짚갈기 등에 의한 토양 유기물의 환원, 산성답, 간척지 등의 석고, 토양 개량제 사용 일반답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경, 각종 병충해 전염원

◇ 올해 방역행정의 이모저모 ◇

을 사전 제거코저 노력하는 물리적 방제 등이 모든 것들의 덕택이 아닐 수 없다.

가. 병충해 전염원의

초기박멸

지표면의 월동 도열병균은 탈곡후의 잔유물 또는 퇴적벼짚 등에서 아직도 상당량이 발견되고 있다는 각도 진흥원의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염원 제거를 위해 이병벼짚, 짚북더기 등은 토양표면에 전면 살포한 뒤 심경, 객토 등의 농토배양 실시와 벼짚의 완숙 퇴비 제조로 초기 전염원을 사전 제거하는데

농한기 중점 시책을 두고 있다.

또한 매년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병의 매개충인 애멸구, 끝동애미충의 초기박멸을 위해 산불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약 10만헥타에 해당되는 논, 밭두렁을 새마을청소년회 영농회 중심으로 불태우기 날을 설정, 실시함으로써 월동 해충 또한 최대한 제거토록 노력할 것이다.

나. 병충해 상습지 중점관리

지난 3년간 계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로 병충해 상습지는 매년 줄어왔다(표 1). 이러한 상습지에는 첫째로 코드넘버를 부여하

<표 1> '84 수도 병충해 방제계획

		방 제 계 획			방제비율
		계	묘 관	본 답	
합		10,614	199	10,415	876
병	소	6,385	117	6,268	527
	도 열	4,054	82	3,972	335
	문	1,776	—	1,776	146
	백	547	27	520	45
	기	8	8	—	1
총	소	4,229	82	4,147	349
	멸 구	1,881	82	1,799	155
	(벼 멸 구)	(1,213)	—	(1,213)	(100)
	이 화 명 총, 기 타	2,348	—	2,348	194
	(이 화 명 총)	(1,462)	—	(1,462)	(121)

어 왔고 행정, 지도기관의 책임자를 지정 집중 관리하는 등의 시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둘째로, 중앙, 도, 시군, 읍면 단위 기관별로 종합방제 시범포를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서 방제효과 파급에 의한 대농민 산교육장으로 최대한 활용코자 한다.

다. 못자리 방제

못자리 설치전 구산질비료, 입제 농약의 사용 등에 의한 결과 지난 몇년간 무병전묘가 육성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종자소독 미흡에 의한 키다리병 발생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일부 철저한 방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병해충이 적당한 환경조건이 주어졌을 때 1차적으로 못자리에 전파되고 모가 자람에 따라 병원체로 번식 확산되는 사례도 발견되어 금년도에는 못자리에서부터 철저한 방제로 본답에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위주의 사전방제로 대비코자 한다.

라. 조기정밀 예찰에 의한 초기방제 주력

옛말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사전에 철저한 방제작업에 임한다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있어서도 아니되겠다. 지난해의 벼멸구 조기정밀 예찰결과로 무려 18.5%의 간접 증산 효과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예찰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평가한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이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예찰요원을 전문화하고 독농가, 영농회장, 방제단원 등의 위촉 예찰요원을 최대한 활용, 병충의 피해가 나타나기 전에 초기 방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 본답 방제 강화

우리나라 영농 여건상 출수기 전후의 집중 강우 내지 태풍 등에 의한 자연 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영광된 일일까? 다된 농사를 병해충 피해로 낭패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벼농사 성패의 관건이 되는 출수기에는 온 행정력을 집중, 관민이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토록 할 것이며, 상습지 등에는 유수를 판단 약효 지속기간이 긴 침투성 농약을 사전 시용토록 적극 지도해 나갈 것이다.

둘째로, 사전 충분한 량의 약제를

〈표 2〉 병충해 상승지 현황

	계		도 열 병		백엽고병		벼잎벌레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81	9,955	58,294	5,730	29,219	4,039	27,825	186	1,250
'82	6,281	35,337	3,550	17,292	2,580	17,202	151	843
'83	4,132	20,889	2,406	10,183	1,591	9,950	135	756
'84	2,677	13,477	1,589	6,487	968	6,326	120	664

확보하고 돌발병충해 발생에 대비한 원제를 비축함으로써 유사시 기동성 있는 방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코자 한다.

바. 병충해 특성에 맞는 방제 기술지도 교육 철저

지난해 문고병, 벼멸구 등의 방제 사례를 잠시 회고해 보면 약제를 써왔부분 중심으로 살포한 지역에서는 약제의 효과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가 들려온 사례가 있다.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금년도에는 조기정밀 예찰에 의해 병충해 특성에 맞게 적기 적량 적부위 살포가 될 수 있도록 대농민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사. 농약 안전사용의 지속적인 계도

최근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농약 안전사용 교육의 결과로 농약 피해

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초제를 살균제 또는 살충제로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방제기구 세척의 미비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금년도에는 재발생치 않기를 희망한다.

이에 첫째로 농약 판매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강화하여 적량의 적정약제가 살포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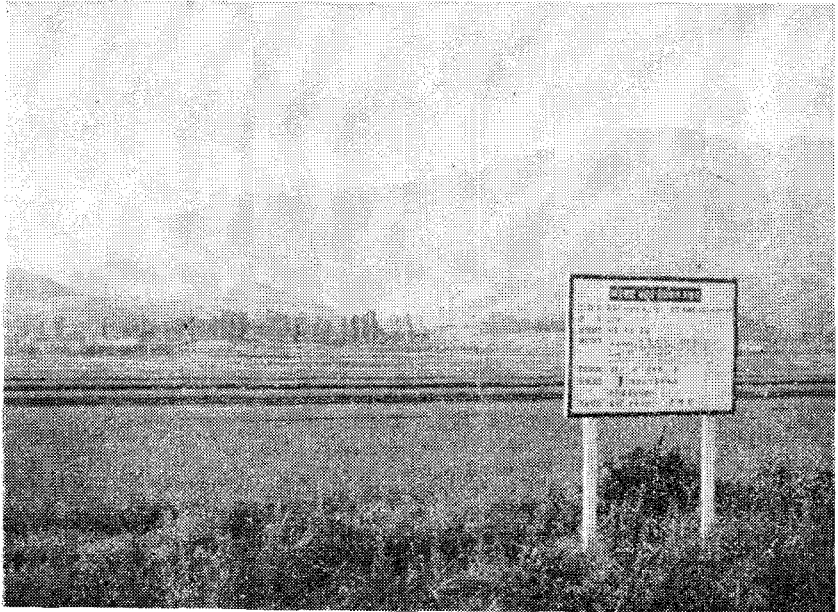
아울러 시중 유통농약에 대한 불시 점검 역시 강화하여 농약의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3. 수도 병충해 방제계획

전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에 병충해 피해가 보인 후 약제를 살포한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떠한가?

인간이나 식물에서나 건강한 상태가 지속될 추 있을 때 알찬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아니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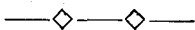
건강할 때 건강은 지켜져야 한다



◇ 농수산부는 올해 조기 정밀예찰에 의해 병충해 특성에 맞게 적기, 적량 살포가 될 수 있도록 대농민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는 어느 의사의 조언과 같이 예방위주의 방제가 노력도 비용도 덜 드는 방법임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에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각 시도가 지역방제 협의회를 거쳐 수립한 금년도 수도 병충해 방제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풍을 이룩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 풍년 농사 실천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

야 할 일은 가까운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농한기 영농교육에 참석,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익혀야 할 일이 아닐까?

내 논이 병충해는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논, 아니 이 나라 전체의 농사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니 방제시는 너도나도 어울려 적기에 마을 주민의 단합된 공동방제가 이룩되는 한해가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이에 용역방제단, 기동방제단, 공동방제단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재검토하고 방제기구의 손질, 새로운

◇ 올해 방역행정의 이모저모 ◇

농기구의 사용법 등도 미리 미리 점검해 보아야겠다.

또한 잘쓰면 약이되고 못쓰면 해가 된다는 농약, 농약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요령을 터득토록 해야 할 것이다.

수도 병충해 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방향의 결과야 논밭에서 병충해 피해 없는 알찬 농사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금년에도 전년보다 더 방제효과가 나온 4% 이하의 감수라는 수치로 기록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농) (업) (상) (식)

채소의 화아분화와 추대

가. 추대(抽苔)

모든 식물은 외적 환경조건과 내적 영양조건이 알맞게 되면 그 체내에 꽃눈이 생기고 이것이 완전히 자라서 개화하게 된다. 이 꽃눈이 생기는 것을 화아분화라 하고 분화된 화아에서 꽃대가 자라는데 이것을 추대라고 한다.

나. 중요성

채소는 반드시 개화하여 착과하여야만 목적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과채류와 생육기간 중에 추대하게 되면 품질을 저하시켜 상품가치를 상실하는 엽, 근채류로 나눌 수 있다.

다. 온도와 화아분화 및 추대

(가) 채소가 저온에 의하여 추대를 일으키는 것을 춘화작용이라 하고 배추·무우·셀러리·순무우·당근등은 발아 당시 어린 식물때부터 저온에 감응하여 추대현상이 일어나고

(나) 양배추·꽃양배추·파·양파·우엉등은 식물체가 어느정도 커진 다음에 저온에 감응하는 것이다.

(다) 상추·엔다이브등은 고온에 의하여 추대한다.

(라) 무우에 있어서는 품종에 따라 고온 장일하에서 고온 감응이 되어 추대하는 경우도 있다.